

258억 계약 '한국판 보라스', 알고보니 불법 에이전트

(강민호·손아섭·민병현)

(ML 슈퍼에이전트)

비하인드 베이스볼

아마추어 출신으로 수년째 FA시장 뒤락퍼락 구단들은 불법 에이전트 알면서도 계약 정상급선수를 보유...벼랑끝 협상 슈퍼갑 선수와 표준계약서도 없어 큰 피해 우려

KBO 규약 제42조는 '대리인(에이전트)'에 대해 '선수나 대리인을 통하여 선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소정의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대리인은 동시에 2명 이상의 선수를 대리할 수 없다. ③대리인제도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BO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2018년부터 선수대리인(에이전트)제도를 시행한다. 첫 번째 자격증 시험은 다음달 22일이다.

그러나 KBO리그에는 이미 수십 명의 '비공인 에이전트'가 활동하고 있다. 아마추어, 프로 선수의 해외진출만 돕는 것이 아니다. 몇 해 전부터 KBO리그에서도 최정상급 선수의 프리에이전트(FA) 협상은 소수 에이전트들이 주도했다. 올해는 그 쏠림 현상이 극심하다.

올 스토브리그는 특정한 명의 에이전트가 특급 FA의 계약을 독점하고 있다. 시장에서 느끼는 이 에이전트의 영향력은 '슈퍼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미국 스카트 보라스(65) 이상이다. KBO는 10개 팀이 참여하고 있는 단일 리그다. 30개 팀이 2개 리그로 구성된 메이저리그에 비해 매우 패쇄적이다. 특히 FA제도에 큰 차이가 있어 소수의 선수만 FA시장에 참여한다.

올해 FA는 사실상 독점 시장이다. 롯데에서 삼성으로 이적한 포수 강민호를 비롯해 롯데에 잔류

한 외야수 손아섭, 그리고 두산에서 롯데로 적을 옮긴 포수 손아섭, 그리고 두산에서 롯데로 적을 옮긴 포수 손아섭이 한 에이전트 그늘에 있었다. 모 구단 관계자는 "이 에이전트는 법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는 인물이다. 그러나 구단은 어쩔 수가 없다. 이미 FA시장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은 에이전트들이 갖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올해 스토브리그에서 특정 에이전트가 주도한 FA 3명의 총 계약 액수는 무려 258억 원에 달한다. 다수의 정상급 선수를 보유한 에이전트 앞에 구단은 주도권을 뺏겼다. 모든 것이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시장 논리로 이해 될 수 있다. 그러나 KBO리그의 실상은 이와 다르다. 구단, 선수, 대리인 모두 KBO규약을 위반하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에이전트 중 변호사는 단 한명도 없다.

올해 시장을 뒤흔든 에이전트는 아마추어 야구 선수 출신이라는 인맥을 발판으로 규정되어 극난 비공인 에이전트로 수년째 FA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구단들이 혀를 내두르는 벼랑 끝 협상전술로 유명인데 동시에 다수의 정상급 선수를 보유하면서 그 협상 전략이 더 구단들을 유매했다.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비공인 에이전트들과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하고 있는 구단들도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고 있다.

외부FA시장에서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규약을 어긴 불법적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에이전트와 협상을 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수와 비공인 에이전트간에 어떠한 표준 계약서도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 높은 액수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다는 명성을 믿고 일을 맡기고 있지만 계약관계가 무질서한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KBO FA선수 뿐 아니라 고교 유망주들도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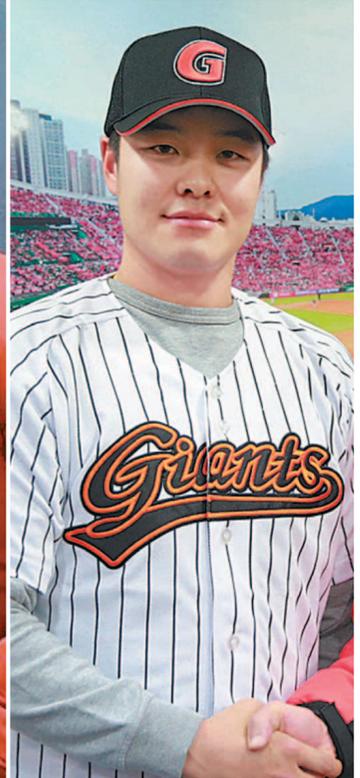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강민호



손아섭



민병현

잠실 방문 김현수, 마음은 메이저리그에

두산 "김현수, ML 명예회복 버리고 있다"



김현수

그 명예회복을 향해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김현수는 지난 27일 잠실 구장을 방문했다. '친정' 두산 구단 사무실을 찾아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프런트와 반갑게 인사했다. 실제 연습장에서 개인 훈련 중인 선수들과도 만났다. 그러나 '협상'은 없었다. 두산 관계자는 29일 "김현수가 메이저리그에 재도전해 명예회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고 말했다.

김현수를 전력 보강 카드로 생각하고 있는 구단은 분명 존재한다. LG도 김현수의 최종 판단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만약 복귀를 결심한다면 영입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김현수는 12월 워터팅을 통해 미국에서 새 소속팀과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누렸던 마이너리그 거부권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40인 로스터와 연봉이 보장되는 메이저리그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메이저리그 계약이 아닌 스플릿 계약을 통한 스프링캠프 초청선수가 될 경우 국내 복귀를 결정할 수도 있다.

2016년 메이저리그 시애틀에서 뛰었던 이대호도 올해 1월 24일 롯데와 계약했다. 이경호 기자

2018 프리에이전트(FA) 시장은 삼성과 강민호의 계약에 이어 롯데가 손아섭, 민병현을 동시에 품으며 절정에 다다랐다. 아직 김주찬(전 KIA), 이종욱(전 NC), 최준석(전 롯데) 등이 남아 있지만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마지막 대어는 김현수(29·전 필라델피아)다.

만30세 시즌을 앞둔 김현수는 KBO리그 1131경기에서 1294타타 통산 타율 0.318을 기록한 특급 외야수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96경기 212타수 타율 0.231 1홈런에 그쳤지만 미국 첫 시즌이었던 2016년 305타수 92안타 타율 0.302 6홈런으로 빅 리그에서도 큰 가능성을 보여줬다. 최근 현지 언론들도 그를 '저평가된 외야수'로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FA 신분인 김현수는 KBO리그에 복귀할 경우 4년 기준 100억 원 대 계약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두산 소속이었던 2015년 잠실을 홈으로 쓰면서 28홈런 121타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FA시장 '빅3 외야수'로 함께 꼽혔던 손아섭, 민병현과 비교해 타격 능력은 가장 앞선다.

그러나 KBO리그 구단들은 김현수 영입에 적극적이지 않다. 여전히 선수 본인의 시선이 메이저리

박용택은 지명타자만...LG 외야 전면개편

류중일 감독 "새 외인타자 3루수 뽑는다"



박용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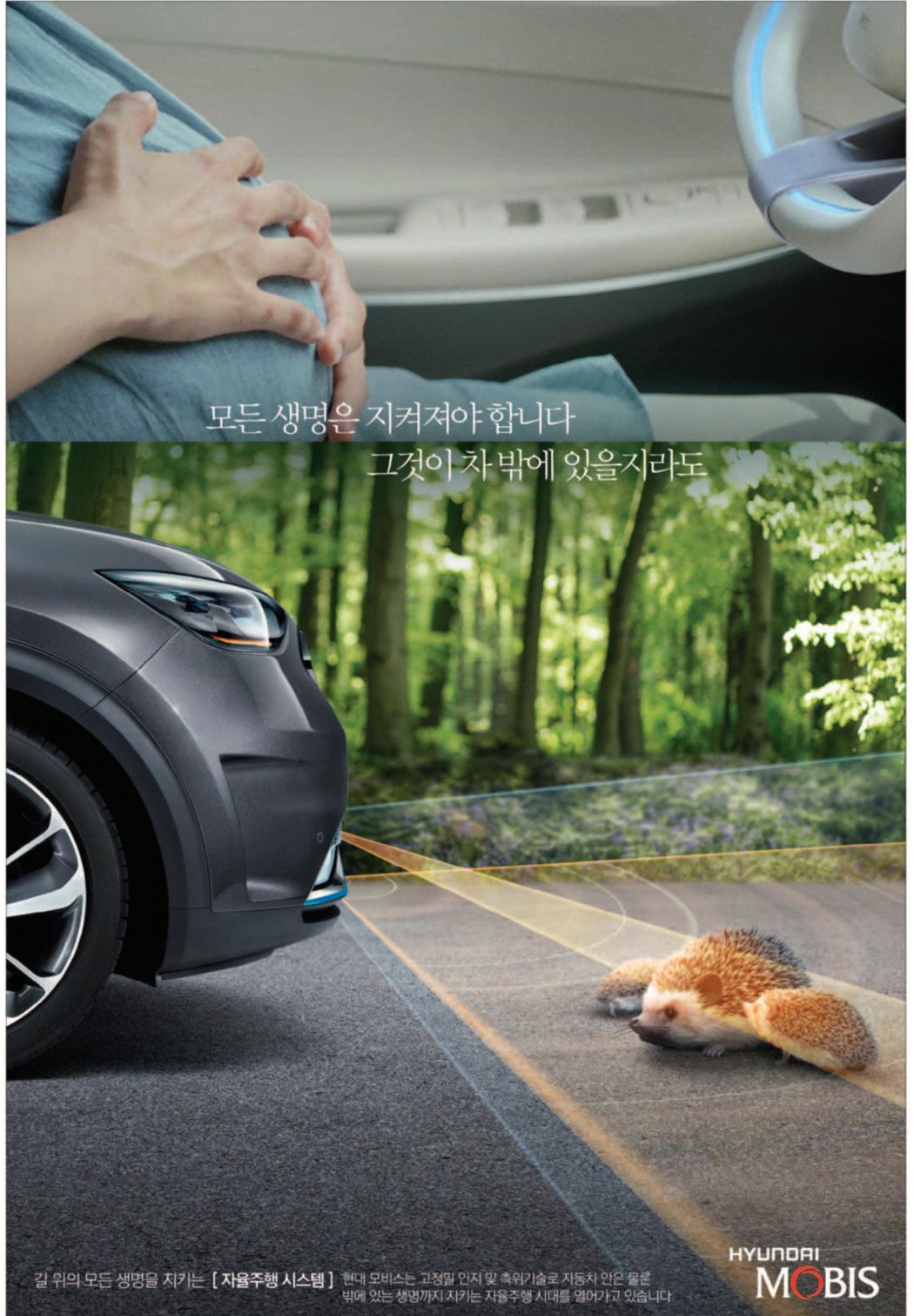
용택은 수비가 어려워 은퇴할 때까지 지명타자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2년 프로에 데뷔해 올 시즌까지 좌익수를 맡아온 박용택(38)의 지명타자 고정 계획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용택은 이미 올 시즌 좌익수로 11경기만 소화했으나, 이제 지명타자로만 나선다면 LG 외야는 뚜렷한 스타가 없는 상태가 된다. 올 시즌 중용된 채은성(27), 안익훈(21), 이형중(28)의 활약이 중요해진다. 이천웅(29)도 분발해야 한다. 여기에 변수가 하나 추가된다. 외부 영입 가능성이다.

LG는 2018 프리에이전트(FA) 시장에서 거물로 주목받은 손아섭, 민병현(이성 롯데)을 모두 놓쳤다. 그러나 아직 김현수(29·전 필라델피아)가 남아있다. 김현수가 메이저리그 잔류를 포기하고 국내복귀를 선언한다면 LG행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 경우 2018시즌 LG 외야는 완전히 새 판이 된다.

정재우 전문기자 jace@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길 위의 모든 생명을 지키는 [자율주행 시스템] 현대 모비스는 고정밀 인지 및 측위기술로 자동차 안의 물론 밖에 있는 생명까지 지키는 자율주행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HYUNDAI MOBIS